

32 성 편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?

• 시몬 드 보부아르(사르트르 아내)는 저서 [제2의성]에서 “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.”라는 말을 남겼다.

즉 보부아르는 생물학적 여성과 사회적인 여성을 규정한 후에 “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없다. 모두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결과로 ‘여자다움’을 획득하는 것이다.

• 사회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자신이 간혀 있는 사회적 성차별에 관해 인식하고 성역할에 대한 왜곡과 편견, 즉 성 편견을 얼마나 자각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.

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, 자신은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며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이다. 그러한 편견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자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은 성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, 그 잔혹한 무자각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.